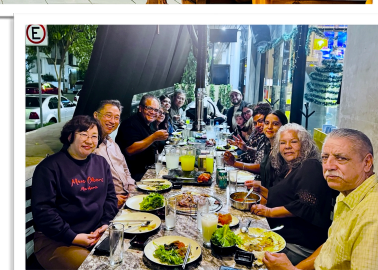


세계기도정보

[콩고민주공화국] 반군 M23 동부 마을 장악...고마까지 임박
 [파키스탄] 이슬람 갱단 수사관과 공모 '기독교인 450명 기소, 5명은 고문으로 사망'
 [튀르키예] 스키장 호텔 화재로 66명 사망, 51명 부상
 [콜롬비아] 최근 목회자 암살 사건 2회 발생
 [칠레] 낙태 합법화 대응 위한 생명 존중 행사 열려
 [인도] 기독교 여성, 힌두교도에 폭행 고문으로 의식 잃어...생명 위협
 [세계] 2025년 기독교 박해국 발표...전 세계 폭력·박해 증가
 [우즈베키스탄] 침례교회 4곳, 교회 등록 거부되고 건축 중단돼
 [미국] 시속 100km 강풍에 긴장고조...LA산불 현장서 '불 토네이도' 포착
 [일본] 일본 규모 6.6 지진 발생...여진 대비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성경 요청' 증가
 [수단] 공군 공습으로 교회 무너져...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



2025. 1
 멕시코에서

선교후원

현황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김 성 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밥 먹이고 싶다

1월 14일 화요일, 친구이며 파송교회의 담임 목사인 김성철 목사가 안식월을 맞이하여 이곳 멕시코에 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나에게 말했다: “천석아,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해온 사역자들을 돌아보며, 그곳 목사들 밥 한 끼 먹이고 싶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니 나랑 다니면 힘들 텐데, 니 건강이 되겠나? 그리고 밥 먹이고 현금도 해야할 텐데... 니 돈은 있나?” 그가 나에게 말한다: “체력은 모르겠고... 밥먹이고 현금도 하고 위로하려고 가는 데, 알아서 될까라, 걱정 마라!”. 저질 체력과 엄청난 더위를 타는 친구랑 쿠바를 제외한 멕시코, 코스타리카 그리고 페루까지, 약 2달에 걸쳐 어떻게 다녀야 할지 사실 걱정이다. 1월 16일 목요일 저녁, 과달라하라에 있는 두 교회 목사 가정과 이제 대학생이 된 앙헬 그리고 수리와 함께 모임을 가진다. 공항에서 친구 내외를 맞이하며, 왜 이리 짐가방이 무거울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들은 이번 기간 만날 목회자 가정을 위해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왔던 것이었다. 비록 언어는 자유롭게 통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은 언어를 넘어 모두에게 감동으로 전해진다. 사랑이 능력이다. 친구도 나도 사역으로 몸은 지쳐 있지만, 지치지 않는 것은 사랑이다. 2달 동안 함께할 일들이 기대된다.

목사와 선교사는 무엇으로 되는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나의 아들에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어떻지 물었다. 나는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했었다. 이야기를 들던 아들이 나에게 말한다: “아빠, 난 안돼.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면 부지런해야 하는데, 나는 아빠처럼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알아, 그런데 다 부지런하더라도.” 아빠처럼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알아, 그런데 다 부지런하더라도.”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근 미겔 목사 아들이 나에게 한 말이 떠오른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리고 어떻게?” 그가 나에게 대답한다: “미겔 윤 으로요.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아빠가 너무 바빠요.”

007 가방 속의 사랑

12월 27일 금요일, 오늘은 2박 3일에 걸쳐 2천 km의 거리를 사역장과 함께 자차를 타고 메리다로 떠나는 날이다. 주일날 페루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지라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시는 정겨운 분들을 생각하면 또 이들을 통해 세워질 현지 교사들을 생각하며 힘을 낸다. 12월 31일 화요일, 2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공항이 있는 칸쿤으로 오신 분들이나 27시간 운전을 하고 온 우리 부부나 모두 힘이 아닌 앞으로 우리가 만날 교사들과 그들을 통해 일어날 일들을 꿈꾸며 마냥 행복하다. 짐들을 차량에 싣고 움직이는 동안 한 분의 행동이 이상했다. 마치 007가방처럼 은밀하게 자신의 핸드케리어를 가지고 다니며 다른 누구도 그 가방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 도대체 저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너무 궁금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가방이 풍선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치아파스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교회 전체를 풍선으로 장식해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모여 은혜 가운데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1월 2일 목요일, 이른 아침 첫 번째 교사 세미나가 진행되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현지 교사들이 가득히 모여 있었다. 스페인어가 공용어이지만, 치아파스의 팔렌케는 대부분 출이라는 부족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스페인어-출 부족어로 통역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감사하게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이해하고 있었다. 한국어 어린이 찬양을 현지어로 번역했었다. 그 찬양이 교회에 올려 퍼진다. 그리고 세미나는 은혜였다. 1월 4일 토요일, 팔렌케 지역교회에서 며칠 동안 배운 내용을 가지고 현지 교사들이 우리와 함께 실습을 하는 날이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인생에 처음 보는 외국인 그것도 한국인들을 보기 위해 많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마을 사람이 모여들었다. 우리가 가르쳐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준비한 교사들 그리고 이 모든 수고를 통해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작은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의 선교적 부르심은 성경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제자 삼아 그들이 선교적 목사가 되고 또 그들이 선교적 교회를 하는 분들이 되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 긴 여정의 과정에 목회자 훈련과 함께 교사 양육이 있었다. 이번 교사 세미나역시 유카탄 지역에서 몇 년에 걸쳐 준비한 교사 양육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이제까지 세워진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치아파스와 페루에서 몇 년에 걸쳐 어린이 전도 집회와 영혼 구원집회를 하고 싶다.

나는 건물을 세우지 않았다. 이제까지 오직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나는 달려왔다. 몇 년 뒤에 은퇴를 꿈꾸는 나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까지 세워진 한 영혼들과 그들의 교회들과 함께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함께하고 싶다. 몇 년에 걸쳐 수천수만의 영혼들이 내가 사랑하는 주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생명의 축제를 나는 꿈꾼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께로부터 온 소망이라면 확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1월 기도제목:

1. 치아파스 및 메리다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 그 땅의 어린이의 영혼 구원이 지속해서 이루어 지도록.
2. 안식월을 맞아 이곳에 온 목사님과 함께 멕시코-코스타리카-페루로 이어지는 긴 여정 가운데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3. 내년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어린이 및 장년 영혼 구원 집회가 아버지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확증을 허락하여 주시길.
4. 여전히 정전과 기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쿠바 땅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그 땅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길.